



## 안경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안경코팅 4가지

안경을 구매할 때 어떤 렌즈가 적합한지, 어떤 안경테가 어울리는지 고려하게 되지만 렌즈 코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렌즈 코팅 일부는 미적 기능일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편안함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있다고 미국 안과 협회(the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AO)의 대변인 Andrew Iwach는 말한다. 어떤 코팅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의 「Consumer Reports」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미국 안과 관련 비영리단체 비전 카운슬(The Vision Council)의 의견을 소개한다.



### 긁힘 방지

긁힘 방지 코팅은 안경을 떨어뜨리거나 거친 천으로 닦을 때 렌즈가 덜 긁히도록 해 준다. “이 코팅 없이는 렌즈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폴리카보네이트 렌즈와 high-index 렌즈는 매우 약하다.” 라고 수석 안경사이자 비전 카운슬(The Vision Council)의 선임 기술 이사 겸 렌즈 부서 담당자인 Michael Vitale은 말한다.

- **고려해 볼 만한 대상**  
모든 사람

### • 지불할 비용

일반적으로 렌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더 강력한 긁힘 방지를 원한다면 고급 렌즈를 구매해야 한다.

### • 알아야 할 사항

Vitale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안경 시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 플라스틱 CR-39 렌즈(미국 시장의 36%를 차지)는 이미 긁힘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CR-39 렌즈 자체가 꽤 긁힘에 강하기 때문이다. 렌즈의 긁힘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케이스에 보관하고 긁힘 없는 극세사 천으로 닦는다.



## 반사 방지

일반적으로 양쪽 렌즈에 코팅되는 반사 방지 코팅은 눈부심 방지 코팅으로도 불리며 “안경 렌즈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양을 감소시키고 어떤 환경에서는 대비도 강화시킨다.”고 의학박사이자 뉴욕대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 안과학 교수인 Scott E. Brodie는 말한다. 즉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량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부심 방지”라는 용어는 약간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Brodie는 말한다. 눈부심(바다에서 반사되는 빛)은 편광 렌즈와 더 관련 있다.

### • 고려해 볼 만한 대상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밤에 자주 운전하거나 컴퓨터 화면에서 글 등을 읽는 사람들. 기본 플라스틱 렌즈나 유리 렌즈보다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나 high-index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추천한다.

### • 알아야 할 사항

반사 방지 코팅은 “crazing” 또는 “spider webbing”으로 불리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그러나 Vitale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반사 방지 코팅이 먼지와 때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정전기방지 처리를 하여 깨끗하게 유지 가능하다.



## 착색

렌즈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염료가 렌즈에 사용된다. 렌즈에 색을 입히면 자외선뿐만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이 감소된다. 렌즈에 사용되는 색은 파스텔 파랑 또는 핑크에서 선글라스에 주로 사용되는 짙은 색까지 다양하다.

### • 고려해 볼 만한 대상

착색 렌즈의 겉모양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착색 렌즈는 밝은 빛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광과민성이나 퇴행성 망막 질병이 있는 사람. 옅은 착색도 대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행조종사와 낮에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Brodie는 말한다.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알려진 노란 착색 렌즈는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잠자기 전에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수면 문제와 눈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다.

### • 알아야 할 사항

Brodie에 따르면 착색 렌즈는 자주 색맹에게 “치료제”로 광고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착색 렌즈를 착용하면 부분 색맹인 사람들은 일부 색의 대비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색의 대비는 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의 경우는 “어떤 해는 없겠지만 도달하는 빛을 제한하는 것은 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Iwach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야간 운전을 위해 노란 착색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빛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력이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하라고 말한다.



## 자외선 차단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과 망막 손상과 같은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렌즈 자체에 대부분 견고한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어 있다. 눈을 완벽히 지키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자외선 차단 처리를 할 수 있다.

### • 고려해 볼 만한 대상

모든 사람, 특히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렌즈 자체 자외선이 차단(제조업체에 따르면 99% 이상 차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구매하는 렌즈가 그러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 • 알아야 할 사항

미국 안과협회(AAO)는 UVA와 UVB를 100% 차단하는 렌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렌즈는 100% UV 보호 또는 UV400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출처: 미국의 「Consumer Reports」 2020년 9월